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염려, 여러분이 펼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계획했을 당시만 해도 이 건물이 가득 차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함께 모여 제181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 대회를 시작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 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게 지나다 보니 6개월이 금세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받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운 하와이 라이에 성전을 재헌납한 일이었는데, 이 성전은 거의 2년 동안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거쳤습니다. 헨리 비아 이어링 회장님 내외분과 쿠엔틴 엘 쿡 장로님 내외분,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 내외



분이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는 11월이었는데, 재헌납 전날 저녁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활동 센터는 2천 명에 달하는 라이에 성전 구역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그 젊은이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제목은 “집합 장소”였는데, 지역 교회 및 성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창의적이고 능숙하게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성전 재
헌납 모임은 영적인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
제 이 아침에 저는 신축될 성전 세 곳을 더
발표하겠습니다. 대지를 구입했고, 앞으
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로
라도 포트 콜린스, 아이다호 메리디안, 캐
나다 매니토바 위니펙입니다. 이 성전들은

그 지역 회원들에게 분명 축복이 될 것입
니다.

해마다 성전에서는 수백만 건에 이르는
의식이 집행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
라,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의식을 받을 수
없는,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그러한 의식
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재난이 닥칠 때마다 늘 인도주
의 원조를 제공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무
시무시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 여파

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식품과 식
수, 담요, 침구, 위생용품, 옷, 연료 등을
포함하여 70톤이 넘는 물품을 나누어 주었
습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스스로 시간
을 내어 자발적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타 최신 통신수단을 사용해 실종 회원들
을 찾았습니다. 회원들은 차량 진입이 어
려운 지역에 교회에서 제공한 스쿠터를 타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고 구호품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세트를 만드는 봉사 활동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지에 있는 여러 스테이크 및 와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가 4만 시간 이상 봉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그 밖의 여러 지역에 계속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열려, 와드나 지부 또는 스테이크나 지방부에서 여러분이 펼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실하게 십일조와 헌금을 내시고, 교회의 기타 기금에도 풍성하게 기부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340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52,225명입니다. 선교 사업은 이 왕국의 생명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도 헌금할 것을 고려해 보시도록 제안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말씀들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분들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늘에 도움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영적으로 고양되고 감명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안식일과 성찬

온 종일 안식일을 영화롭게 보내고 그에 따른 영적 축복을 주중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정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들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그 음성이 바로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음성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주일학교에서 신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전서에서도 선지자들과 한 백성에 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신약전서는 하늘과 땅 두 곳 모두에 속하신 상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의 삶과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교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중요한 구주의 삶과 성역이 담긴 이 신약전서에 대한 믿음을 잊거나 잃어버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우리 삶에서 구주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책도 경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책을 공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구

주의 교회를 조직하던 시기에 남긴 기록을 즐겨 읽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디모데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좋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사람들에게 쓴 글 중에서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계속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면, 또는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려 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단 하루는 나머지 옛새와는 다르게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²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일을 하지 않고 쉬셨으며, 그분은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³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는 언제나 예배가 포함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필멸의 세계로 들어간 후 다음과 같은 명을 받았습